

확신으로 빛나는 그 활화산의 壯觀

「황혼과 전위」「방황, 그리고 질주」의 高銀과 함께

장석주

시인 · 문학평론가

「출판저널」로부터 고은 선생과의 대담서평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실은 난감했다. 그 난감함은 대담서평이라는 형식의 낯설음과 함께 (그것은 대담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평에 그것이 있는가. 나는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거의 15, 6년 동안이나 읽어온 고은 선생의 숭한 저작물들의 내 정신적 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생의 앞에서 어떤 막막함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차라리 거대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층이고, 나는 성능이 신통치 않은 굴착기를 가진 서툰 탐색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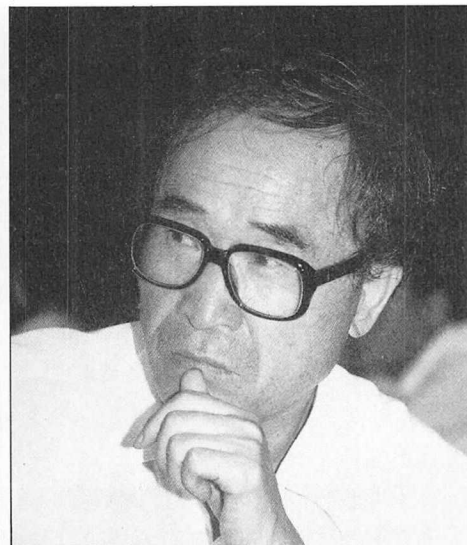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 대담서평을 쓰기로 했다. 우선 고은 선생의 최근 저작물인 「황혼과 전위」「방황, 그리고 질주」, 그리고 신작시집인 「아침이슬」을 조금씩 읽어치웠다. 고은 선생과 나는 교보빌딩1층 '비즈니스홀'에서 8월 22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질문지를 준비할까 하다가 집어치우기로 했다. 철저하게 우연과 즉흥성에 기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퇴근시간 무렵의 지옥과도 같은 교통혼잡을 예상하고 조금 일찍 서둘러 약속장소로 출발했는데,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내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빈 채였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걸 방임했다. 막연히 피로감이 몰려왔다. 가만히 앉아 있자니 무료했고, 그래서 생맥주를 두잔 마셨다. 서둘러 마신 탓인지 빠르게 취기가 몰려 왔다. 약간의 몽롱한 취기 속에 기분 좋게 내 육신을 방치하고 있을 때 고은 선생이 흰색 와이셔츠 바람으로 휘저휘적 나타나셨다. 선생은 곧바로 마주양 한병을 시키셨다. 요즘 선생은 마주양을 즐겨 드신다. 그리고 우리는 「출판저널」의 사진기자를 위한 포즈를 잠시 취해 주고, 대담서평과 거의 상관없는 한담을 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한담으로 일관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선생은 취하셨을 때 진면목을 보여주신다. 한차례 더 자리를 옮겼다. 취기가 도도하게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나는 대담 생각을 접어던져 버렸다. 집착을 버리니, 편안했다. 그날 나는 대취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나의 대담은 실패였다. 이 글은 그 난감함과 막막함, 그리고 대취와 실패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문학사는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 대가나 원로를 갖지 못한 비극이 있다. 대가나 원로

고은이 없었다면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문학은 꺾이나 적막했을 터이다. 허무주의자에서 투쟁적 지식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민족시인으로 자기부정과 생성을 거듭해온 고은의 삶과 문학은 곧 우리 현대사의 총량에 맞서는 정신적 역정의 전범, 그 자체이다.



장석주씨



고은씨

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따르고, 마침내는 넘어서야 할 문학적 전범이 부재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가나 원로란 다음 세대에게 곧 길이며, 그늘이고, 언덕이다. 끝끝내 가야 할 당위로서의 길, 때때로 끝없는 정신적 소모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재충전과 창조적 휴식으로서의 그늘, 그리고 이미 성취된,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할 까마득한 높이로서의 언덕, 그것이 대가와 원로의 진정한 몫이고, 소임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과 그늘과 언덕이 없는 것이다. 무성한 잡초와 가시덤불과 곡식 한 톨 자라지 않는 자갈투성이의 척박한 황야뿐이다. 그 부재와 황폐함, 적막함이라니. 왜 그럴까? 나이 40만 넘으면 정신적 역동성과 창조력의 급격한 쇠퇴, 그리하여 등단작품이 곧 평생의 대표작이 되어버리고 마는 작품생산의 절대 빈곤성, 현대사의 불명예스러운 국면에서 울골은 삶을 세우지 못하고 쉽게 변절하고 훼손하는 그 부끄러운 직무유기, 혹은 철저한 망각과 방임, 그리고 창조의 무한고통으로부터의 비겁한 도피와 소시민적 안락에의 탐닉 속에서 대가나 원로가 저절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삶과 역사에 대한 이 나태, 불성실, 조로현상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문학사가 대가나 원로를 갖지 못한 원초적 비극은 보다 오래일 것이다.

우리문학의 한 정신적 전범

대가나 원로가 부재하는 척박한 한국문학 풍토 속에서 시인 고은은 우뚝 솟아 있다. 고은이 없었다면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문학은

꺾이나 적막했을 터이다. 허무주의자에서 투쟁적 지식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민족시인으로 자기부정과 생성을 거듭해온 고은의 삶과 문학은 곧 우리 현대사의 총량에 맞서는 정신적 역정의 전범, 그 자체이다. 이미 고은은 대가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 70년대 이후 격동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고은은 '오늘의 삶에 대한 준엄한 자기실천'을 몸과 행동으로, 그리고 바닥을 모르고 분출하는 엄청난 문학적 창조와 생산으로 보여줬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과 경이의 대상이었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반성과 뼈아픈 성찰, 그리고 부단한 자기쇄신을 촉구하는 질타였다.

1988년 봄에 그의 전집을 간행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썼다.

...이제 고은의 모든 저작물들은 그 자신의 사유물의 목록에서 벗어난다. 그 한 권 한 권은 한국현대사의 비바람 가득찬 역사 내용을 고스란히 꺼내고, 온몸으로 처절히 나뒹굴며 빚어낸 우리 시대 정신사의 궤적이며, 값진 구현체이다. 비록 그의 삶과 문학 속에 무너져 있는 파란과 곡절의 역사경험이 그 바탕을 이룰지언정 그것은 한 개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개체적 문학생산이라는 좁은 의미의 굴레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할 것이다.

「고은 전집」은 산사에서 바다에서도 깊은 잠 이룰 수 없었던 한 절대허무주의자의 세계, 즉 닫힌 자아의 공간 속에서 삶의 본질적 존재론적 국면에 천착했던 일인칭의 세계와, 자아와 자아의 상호관계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회와 역사라는 열린 공간에서의 삶의

전망 및 상황과 결부된 국면들을 천착하는 삼인칭의 세계가 한마당 동시에 어울려 펼쳐지는 세계이다. 「고은 전집」을 차례로 읽어가는 일은 우리 자신의 삶에 빛과 풍요를 더하는 의미로운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여정은 고은의 문학세계가 처음으로 싹을 틔워 줄기를 뻗고 가지를 펼쳐 꽃과 열매와 그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되짚어 보는 길이며, 허무주의와 초월주의로 빛나던 초기의 닫힌 감성의 문학세계에서 민족, 국토, 민중을 둘러싼 시대의 고뇌와 곤궁함을 대승적으로 껴안는 더 크고 깊은 세계로의 거듭남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아직도 작가가 살아 있고, 그 살아 있음이 그침없는 열정적 문학생산으로 연결될 때 「고은 전집」은 미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미완은 얼마나 행복한 미완인가.

우리의 여정을 이끄는 「고은 전집」은 마침내 나침반 없는 시대의 별이다. 그것은 우리를 역사의 피안, 객관의 우주, 화염의 바다로 이끌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고은 전집」을 그의 창조의 밑토로부터, 그의 개인소유목록으로부터 밖으로 들어내서, 우리 시대의 공동체의 사회 문학적 자산으로 공개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의 당위이며 필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긴다.

허무의 매혹 이외의 것들에 대한 맹렬한 적의, 그리하여 환속 이후 그의 유명한 온갖 기행과 광태, 통음과 수차례의 자살미수 등으로 점철된 고은의 삶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전후의 폐허세대로부터 홀연히 귀환하여 역사 앞에

선 것이다. 그는 개체의 삶을 버리고 민족현실에 나아간다. 그 민족현실에 투신을 위하여 그에게 지난 10년 동안의 허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나는 나를 죽여서 나를 다시 낳았다”고 말했다. 그 서슬퍼른 유신시대의 암울한 질곡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흔쾌히 수납해 버리고, 그는 완강해진 것이다. 그때가 바로 그의 화곡동시대이다. 그 무렵 그의 화곡동 집은 ‘회합과 술과 밥의 장소’였고, ‘농성장이고 민주단체들의 결성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화곡동 집은 “정부 기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먹고 자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집은 중앙정보부 안전국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런 정치적 박해와 고행의 단련 속에서 그의 삶과 문학은 끝없는 자기부정과 쇄신을 거쳐 자주적 완성의 체계를 획득한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 나는 70년대에 태어났고 80년대에 거듭났다.

‘영원한 전위’의 역동성과 현재성

그렇다, 그는 허무주의의 대표자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역사의 전위라는 질곡과 형극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세운다. 그는 새로 태어난 것이다. 삶의 쇄신과 ‘문학은 단순한 한 기초교양 부문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자의 전역사성·전사회성·전인간성을 향도하는 주체의 기능’이라는 문학에 대한 새 인식과 각성은 서로 맞물려 있다. 그것은 상호작용한다.

「황혼과 전위」는 80년대 내내 민족문학의 전위에 서서 민족문화진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고은의 민족문화론의 집대성이다. 황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위란 무엇인가. 그는 말한다.

— ‘황혼’은 어쩌면 20세기의 마지막을 표상할 것이고 ‘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진실의 탄생을 의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서 나는 딱 부러질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 아직 황혼이란 말이 들어맞지 않는다. 내 열정은 지금도 저 50년대 전후의 폐허에서처럼 숨가쁘고 견잡을 길이 없다.

80년대는 여러 문학이념들과 문학노선들이 백화제방으로 표출된 연대이다. 그는 90년대로 넘어가는 이 변혁의 국면에서 젊은 문예이론가들의 교조주의적 민족문학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자기성찰을 촉구하고

나선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의외의 느낌과 함께 약간은 산뜻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그냥 ‘까는’ 것이 아니고 이론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독려이다. 어쨌든 그 단호한 촉구에서 우리는 그가 선취하고 있는 ‘전위’로서의 현재성과 역동성을 읽는다. 그는 문학의 영원한 전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이미 90년대의 징후들을 냄새 맡은 것이다. 특히 그는 젊은 문예이론가들의 문학을 사회의 종속변수로 복속시키는 사회과학적 도식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80년대의 민족문학운동의 결과물들로 떠오른 과학성, 당파성, 민중의 전형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비판, 반성의 과정은 ‘보다 큰 민족문학운동의 大局을 향수’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그것이 없을 때 어떤 현실의 역사변혁도 불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한다.

— 문학에서의 과학성이 간절히 요구되는 오늘에 있어, 그러나 과학 때문에 문학의 생생한 진동이 둔화되거나 박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우리는 과학의 예술적 실천을 통한 문학에의 기여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자기비판은 진보적 삶에 육체성과 현실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황혼과 전위’의 제1부를 구성하는 ‘90년대 민족문학을 위한 전망’ ‘문학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항쟁 이후의 문학’ ‘80년대 민족문학운동의 문제제기’ ‘오늘은 무엇인가’와 같은 글들은 현단계의 문학판의 중요쟁점들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값진 글들이다. 그 글들에서 그는 그간의 민족문학 논의들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다가올 연대의 민족문학을 위한 전망의 모색을 보여준다. 그 글들은 확신으로 빛난다. 그것은 壯觀이다.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죽고 싶지 않다”

‘방황, 그리고 질주’는 「황혼과 전위」의 단호함과 열정의 문체보다는 소슬한 문체이다. 그것은 아마도 「황혼과 전위」가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 당위 역사를 염두에 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방황, 그리고 질주」는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가 주조를 이루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방황과 질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관한 서술로 이루어진 그의 글들은 짧은 단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차고 때로 아름답다.

— 사람은 본질적으로 역사의 삶을 살고 있다.

— 나는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죽고 싶지 않다.

그는 운명적으로 어떤 안주 속에 자신의 삶을 매어둘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질풍노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살아가는 동안의 사람의 불가결한 본질성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나는 고향을 경계한다’고 외친다. ‘고향이라는 근원’ ‘떠난 자의 고향’ ‘고향의 바다’와 같은 글들에는 이를테면 고향의 회고에 깃들 법도 한 어떤 축축함이 일체 배제되어 있다. 그는 고향에 대해서조차

인위적으로 건조하고, 단호하다.

— 고향이란 질곡일 수 있다. 그 질곡을 깨치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는 고향을 사랑하는 소박한 정서조차 ‘번역’이라고 서슬퍼르게 매도한다. 왜냐하면 고향이란 민족에 대한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고향에 대한 소승적 집착을 해탈하고 민족이라는 대승적 고향의 세계로 나아간 사람이다.

‘한 이름없는 삶’ ‘나의 80년대기’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글들은 한결같이 조용한 어조이면서도 그가 사사로운 탐미와 주관의 사람으로부터 민족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성, 역사의 필연성 따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방황하는 사람은 더 방황하고, 고민할 사람은 더 고민하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그 퇴폐와 비생산성이야말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성기제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 나 역시, 내 지난날의 온갖 남루하며 거저되며 노예적인 삶을 살아온 일 자체가 오늘의 나를 각성시켜 준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은의 삶과 문학은 그 자체로 나에게 하나의 화두이다. 그 화두는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물음 앞으로 소환한다. 그것은 무섭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고은의 시들은 마침표, 즉 종지부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은 있으나 끝은 없다.’ 나는 「아침이슬」의 첫 페이지를 열어 고은 종지부가 없는 시를 읽는다.

지난 여름내
땀별 불별 놀아 밤에는 어둠 놀아
여기 새빨간 켈레야매 몇 개 이룩함이어

울거니!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며 여물었나니